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2014)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의 인문학’

개최 시기 : 2014년 10월 30일~11월 1일

개최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대전시,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유네스코에 의해 2011년 창설된 세계인문학포럼(이하 ‘포럼’으로 약칭)은 발의국인 대한민국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첫째,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둘째, 시대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문학의 현주소와 역할을 점검하며, 이를 통해 셋째, 인류와 인문학의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1회 포럼에서는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라는 주제 아래 글로벌 시대의 정체성, 문명의 갈등, 지구 윤리와 문화 간 소통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2012년 11월 같은 도시에서 개최된 제2회 포럼은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오늘날 전 세계에 범람하는 갈등과 충돌,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과 상처에 인문학이 어떤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었다.

오늘날 과학과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간의 상황은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적 경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를 겪고 있다. 컴퓨터과학을 필두로 하는 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사회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으며, 뇌과학과 생물학은 인간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흔들고 있다. 이 변화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새로운 인간 규정, 새로운 사회상의 구성 등, 다양한 인문학적 성찰을 요구한다. 이제 대한민국 세계인문학포럼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여 “질주하는 과학기술 시대의 인문학”을 제3회 세계인문학포럼의 대주제로 제안한다.

1. 포럼의 구성

포럼은 대주제를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다루는 기조강연, 대주제에서 발전된 중주제를 다루는 2개의 전체회의, 그리고 각 전체회의의 주제를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다루는 일련의 분과회의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포럼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제기하는 인문학적 문제를 주제별로 나누어 성찰하는 부분(전체 및 분과 1)과 과거의 과학적 격변기에서의 인문학적 대응을 돌아보고 미래의 창조적 비전을 모색하는 부분(전체 및 분과 2)으로 이루어진다.

1) (기조강연)

질주하는 과학기술은 한편으로 인간 역량의 강화,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 극복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인간과 기계, 그 각각의 정체성과 관계, 가상현실 속을 유영하는 아바타가 낳는 다중 정체성의 효과, 인간의 개성을 유전자로 환원시키는 생물학적 결정론 같은 까다롭고도 중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정체성 및 존재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문학적인 문제들이다. 기조강연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인문학이 응답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을 진단함과 동시에 인문학의 범위와 역할을 재정 의하는 포괄적이고도 상징적인 메시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기조강연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수 있다: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양식에 일어난 변화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과 전망
- 정보통신, 로봇틱스,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해 인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인문학에 요구되는 역할
- 질주하는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교류 및 협력 가능성 등

2) (전체회의 1) 과학기술의 질주와 인간 정체성

전체회의 1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일으킨 근본적인 변화들에 대하여 성찰한다.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인간 정체성의 변화, 과학기술의 성취와 한계,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점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생활 공간의 변화가 갖는 인문학적 의미
- 생명공학, 뇌과학 등의 발전과 인간 정체성의 변화
- 과학기술과 연관된 윤리학적 쟁점들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일으키는 희망과 공포의 문화적 구성 등

○ (분과회의 1-1) 사이버 사회에서의 인간

정보통신기술은 물리적 시공간에 묶여 있는 인간을 해방시킴과 동시에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의 폭발적 생성과 민주적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대면적, 물리적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가상적 공간으로 삶의 세계를 확장시킨다. 이는 공간과 실재의 개념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문제를 야기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여기서 논의될 수 있다:

- 가상현실과 아바타
- 현실의 생활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스마트화(Smartization)
- 디지털 시대의 지식 생산, 공유, 그리고 집단지성

- 정보의 민주화, 획일화, 그리고 지역화

○ (분과회의 1-2) ‘포스트휴먼’ 몸과 마음

오늘날은 포스트휴먼 테크놀로지의 시대다. 뇌과학과 로봇틱스의 발전으로 우리는 인공 장기 같은 제한된 결합을 넘어 인간과 기계의 포괄적인 결합까지 상상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지능뿐만 아니라 감정도 갖춘 로봇의 출현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분과회의 2-2에서는 포스트휴먼 테크놀로지와 연관된 인문학적인 쟁점들을 다룬다.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여기서 다루어질 수 있다:

- 포스트휴먼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는 신체의 변형 및 확장, 그리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인간의 정체성 변화
- 인간과 기계의 접목, 인간을 추월한 기계에 대한 공포 혹은 인간 소외의 문제
- 인간과 로봇의 교류와 공존
-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머니즘에 대한 문학과 예술의 다양한 반응

○ (분과회의 1-3) 생물학주의와 인문주의

인간은 자연에서 발생한 생물학적 존재이면서 또한 문화를 발생시킨 존재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의 진화 경로를 형성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은 다른 생물들과 구분되는 존재로 생각되어 왔다. 생물학적 규정을 넘어선 존재로서의 인간관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유전공학, 뇌과학 등의 발달은 기존의 인문적 가치들을 생물학적으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들을 낳으면서, 위 질문에 큰 무게를 싣는다. 생물학적 결정론과 연관된 인문학적 쟁점들을 다루는 분과회의 1-3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 생명의 의미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 인문학적 이해
- 삶과 죽음, 질병과 행복, 정상과 개선 등의 문제
- 인간에 대한 인문학과 생물학의 이해, 그 차이와 접점
- 유전과 형성, 재능과 교육, 소질과 계발 등과 관련 쟁점 등

3) (전체회의 2) 시대 속의 인문학과 과학기술

전체회의 2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역학적 관계를 과거에서 출발하여 미래를 향하여 성찰한다. 과거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어떤 인문학적 문제를 던졌는가, 그리고 이에 대하여 과거의 인문학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되돌아보아 미래를 향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 미래를 향한 교훈은 오늘날 과학기술이 던지는 문제들의 특수성에 대한 통찰을 동반하여야 하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하는 다양한 문제와 재앙들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의 다양한 인문학 분야들이 어떻게 과학과 창조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 인문학과 과학기술 담론의 역학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늘의 인문학에 던지는 도전
- 과학기술의 부작용과 인문학적 해법
-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인문학의 전망 등

○ (분과회의 2-1) 과학기술 혁명기의 인문학

인간 자신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탐구정신은 인류 문명의 특징이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17세기에 폭발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 과학 정신은 산업혁명의 시대에 기술적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분과회의 2-1에서는 과학과 산업의 혁명시대가 동양과 서양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시대와 이전 시대는 어떻게 다른지, 특히 기술적·사회적 변화가 새로운 철학적 전망과 결합되어 있었던 고대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더불어 과학-산업 혁명이 어떤 인문학적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문학은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고찰하여 오늘의 교훈으로 삼는다:

- 과학-산업 혁명 시대 이전과 이후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
- 과학기술 혁명기가 인문학에 미친 영향 혹은 그 반대
- 과학기술 혁명기에 대한 반성적 재조명
- 동서양의 과학기술사와 인문정신 등

○ (분과회의 2-2)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비판의 재조명

인문학적 사고 가운데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제시하는 한 경향이 있다. 플라톤을 시조로 하고 20세기의 다양한 철학자들이 되살린 이 중요한 경향은 과학과 기술을 인간의 전통적 가치와 근본적으로 대치시킨다. 이 비판은 과학기술의 유익함에 회의적인 사회학적 경향과 결합하여 사회적 통제의 과정을 부각시키며, 과학적 지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도 결합해서 과학의 진리성과 기술의 중립성을 폄하한다. 이러한 우려는 철학과 사회학을 넘어 창조적인 예술 분야에서도 강력하게 표명되는데, 디스토피아 계통의 공상과학소설이 대표적인 예다. 분과회의 2-2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과 그 영향 그리고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가능한 대응을 과학주의와 전통적으로 결부되어온 주요 문제들을 참조하여 재조명하고 평가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 과학주의의 형성과 유포가 인간의 존재론에 미치는 영향
- 테크네(techne) 개념이 오늘날 지니는 의미
- 기술과 그에 대한 묵시론적 상상
- 인류세(the Anthropocene)에 대한 사고 등

○ (분과회의 2-3) 인문학과 과학의 미래지향적 만남

인문학적 성찰은 과거로부터의 학습,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진단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인문학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문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깨달음은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과학과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과회의에서는 인문학의 다양한 분야들이 과학과 만나 새로운 미래지향적 인문학을 구성하는 창조적 방식을 논의한다:

- 종교와 과학의 만남(대화)은 가능한가?
-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판타지에 대한 인문학적 전망
- 과학발전의 방향과 인문학의 융성(교육과 과학의 만남 등)